

호남,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최하위

전남 51만9400원·전북 50만3200원...울산보다 20만원 이상 적어 김희재 의원 "일자리·고부가가치산업 부족...노후보장 격차 심화"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전남 지역민은 늘어서 받는 국민연금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고, 일을 하는 기간도 짧아 호남 지역민의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납입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저소득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산업화 과정에 소외된 호남은 젊은 시절은 일자리 없어 고생하고, 늘어서는 연금도 적은 '평생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민 등을 위한 특단의 국민연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남과 전북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3200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남이 월평균 수급액 51만9400원으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적었다.

광주 거주 가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54만3800원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였다.

이처럼 전남·전북 거주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도권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보다 적어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75만7200원)이었다. 울산지역에 대규모 공단 등이 자리잡고, 고액 연봉자가 많은 점 등이 이 같은 차이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수급액 1위인 울산과 호남과의 차이는 전북(25만3900원), 전남(23만7800원), 광주(21만3400원)으로 모두 20만원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9300원 ▲경북 55만67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7900원 ▲제주 53만5500원 ▲대구 52만9700원 ▲충남 52만5700원 순이었다.

김희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 보장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아베 전 일본 총리 조문 나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日교과서 ‘강제연행’ 표현 금지 철회하라”

한일 양국 시민단체, 일본 정부에 촉구

한일 양국 시민단체는 '강제 연행'이나 '중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일본의 가해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을 교과서에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한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한국)와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일본)은 12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에 대한 정치 개입을 즉시 중지하고 중군 위안부, 강제 연행, 연행 등의 용어 사용 금지를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3월 말 종료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이는 평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집필자와 편집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 개정이나 각의 결정 등을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나 강제 연행에 관한 "내용 수정을 교과서 발행자에게 사실상 강요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 발행자가 정부의 견해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등을 통해 제시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2014년 1월 검정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이 제안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정민 총부대 교수 등 개인 213명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8개 단체, 일본 측에서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명예교수 등 개인 285명과 역사학연구회 등 176개 단체가 찬동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 일행은 회견을 마치고 성명과 이에 찬성한 이들의 명단을 문부과학성 교과서과 담당자에게 제출했다. /연합뉴스

중국 추월...내년엔 인도가 세계 1위 인구대국

인도가 내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유엔이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미국 경제매체 CNBC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인구의 날'에 맞춰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인구는 올해 각각 14억명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엔은 2027년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엔 여전 예상 시기가 4년 앞당겨졌다.

인도 정부의 조사를 보면 인도 인구는 2011년 12억명을 넘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인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인구 센서스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0년 만의 인구센서스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가 14억1260만명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중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K-푸드' 전남 식품, 프랑스 입맛도 사로잡다

'파리 케이-푸드 페어'서 식품홍보관 운영 인기

전남도의 유자 주스, 유기농 김 등이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9일까지 이틀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케이-푸드 페어에 국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식품홍보관을 운영해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간직한 남도음식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페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유럽에 한국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한 축제다. 현재 전남도는 오스트리

아 수도 비엔나의 '아시아푸드센터' 내 전남 상설판매장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운영하며,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페어에서 유럽 6개국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에서 거래되는 25개 제품을 중심으로 시식 행사와 현지 바이어 수출 상담을 진행한 결과, 유기농 유자주스와 유기농 김 등 웰빙식품이 현재 엠지(MZ)세대 참가자와 바이어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유럽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유기농 식품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연간 35% 이상 증가하고 있다.

홍보관을 운영한 김기철 전남도 유럽사무소장은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로부터 전남 식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유럽 시장에 맞춘 차별화된 현지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올해 말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전남 상설판매장을 추가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민선8기 농수산식품 수출 5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로 뽐내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도록 농수산식품 해외 수출 전진기지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양돈장 8대 방역시설 구축 의무화

10월1일 규칙 개정안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내 모든 양돈 농가에선 연말까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최근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하면서 정부가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양돈장은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8대 방역시설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8대 방

역시설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다.

다만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폐기물 수거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군구가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을 마치면 최대 2년간 대체 시설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내 양돈농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올해 총사업비 129억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7월 현재 전남 510개 양돈 농가 중 179호(35%)가 방역시설 설치를 마쳤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22건이, 야생멧돼지에서 2천636건이 검출됐다. 전남도는 미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임야 삽·니다

천평이상, 지분형영, 맹지시절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농
공
장
임
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뱅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방동청고 200평 (금방동, 방동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광수(720528-XXXXXX)
• 회후주소 : 광주 북구 송월로49번길 39, 301호 (오치동)

피상속인 망 정광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2년 단715호로 신청하여 2022년 7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7월 13일

• 상속인 : 1. 유정화 (680214-XXXXXX)
2. 정영훈 (061101-XXXXXX)

상속인 1,2 주소 : 광주 북구 용주로30번길 100, 1동 703호 (용봉동, 유정파크맨션)

상속인 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권권자도유정화

• 신고기간 : 2022. 7. 13. ~ 2022. 9. 22.

• 채권신고주소 : 상속인 1. 유정화의 주소

산행안내

7월16일(토)

▲광주호산회 7월16일(토) 통영 욕지도 삼산행 05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시 롯데백화점 06시15분 예술회관후문 ※ 다음 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특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광고문의 227-9600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신문구독 220-0551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약구독 220-0550